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과 출산: 생존게임에서 놀이로



조 광 덕
정경대학 사회학과

영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유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456억을 향한 다양한 게임에서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임시라는 하나의 게임에서 생존을 했으며, 취업이라는 또 다른 게임에서도 생존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임과 출산이라는 게임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조혼인율은 천 명당 4.2건으로 매우 낮다. 출산율의 대부분이 혼인에 후행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산율 역시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으로 매우 낮게 기록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 다양한 생존게임의 탈락률은 매우 높다.

왜 우리의 삶은 생존게임이 된 것일까? <오징어 게임>과 우리 삶의 공통점은 바로 ‘경쟁’에 있다. 그것은 생존 경쟁이며, 돈이라는 욕망을 향한 질주이다. <오징어 게임>에서 경쟁은 생존게임이라는 형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일남’이라는 등장인물은 유일하게 생존게임이 아닌 놀이로 즐기는 참가자이다. ‘오일남’은 게임의 규칙을 만든 자이며 실패를 한다고 해도 생존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일남’이 경제력이라는 권력 지원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의 양에 따라서 게임의 승률은 상승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식의 생존율을 높인다. 자녀는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액 과외를 받고, 부모는 양질의 입학 자료도 수집해 줄 수 있다. 명문대에 진학한 후에는 고액연봉자가 되는 길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심지어 부모의 사회적 위치가 취업에 유리한 사건들도 발생한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부모의 지원 없이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가 필요하다. 신혼집을 6억이라 가정하자. 긍정 한스푼을 넣자. 대출이 있다. 이제 3억이 남았다. 초기자본 3억을 위해서 연봉 30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약 10년이 걸린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진=픽사베이)

“

해결 방법은 우리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다시 긍정 한스푼을 넣자. 결혼 상대자도 함께 모은다! 그럼 5년이면 충분하다. 이러한 계산은 매우 극단적이다. 첫째, 예비결혼 부부가 모두 취업했다는 가정이다. 둘째, 아파트 가격 변동이 없어야 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우리 긍정해보자! 이 예비결혼 부부는 결혼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했다. 사랑은 불가능을 뛰어넘기도 한다.

다음 게임은 출산이다. 하지만 이들이 은행에서 3억을 대출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출산에는 육아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출산을 위해서 부인은 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은 반으로 줄어든다. 3억 대출과 육아비용, 생활비는 모두 남편의 월급으로 감당해야 한다. 또한 부인은 출산 이후에 직장으로 완전한 복귀가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 이 부부는 자신들에게 묻는다. “자녀를 가질 것인가?” 이 부부는 지난날을 생각한다. “우리가 자녀의 생존게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력을 지녔는가?” 무엇보다 이 생존게임에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생존게임은 우리로 충분하다”는 말을 남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존게임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대물림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생존률이 매우 낮은 구조이다. 너무 극단적인가?

그렇다! 여기서 글을 마감하면 이 글은 스펙터클 호러물이 된다. 필자는 명랑물로 마무리하고 싶다.

오일남은 한계적 상황에서 “이 러다 다 죽어”라고 외친다. 왜 이러한 대사를 외친 것일까?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기감인가? 아닐 것이다. 생존게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삶에서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게임을 중단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나 대중매체는 그래서 생존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성취감을 강조한다. 이 효과로 우리는 이 생존게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우리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포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돈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니다. 그런데도 생존게임의 목표는 돈이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리를 먹고 산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공리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행복 자체가 돈이 아니듯이 다양한 욕망으로 탈주할 수 있어야 한다. 단일한 회계의 욕망이 아닌 다양한 욕망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때, ‘배치됨’이 아닌 ‘배치함’이 될 때, 우리는 이 게임에 미참여자가 되고 자신의 삶을 놀이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하는 탈영토화

(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의 다른 아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아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지 않아도, 자산증식이 목적인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느낀 행복을 자식들에게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매 학기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그래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령 이 사회가 다양한 욕망을 사회적 규범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욕망을 실현할 때 이 사회는 생존게임이 아닌 놀이가 되고 그때 혼인율과 출산율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나의 행복한 삶에서 ‘그대’와 ‘자녀’도 행복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삶은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에 사회 불평등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시간을 유예하지 말기를 바란다. 모든 학생에게 “포스가 함께하길…”.